

해외건설의 위기 진단과 성장 전략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공학박사

1. 해외건설의 위기

전년대비 30% 급락한 461억 달러라는 수주 실적을 기록했던 2015년이 지나고 2016년 해외건설시장을 전망하며 필자는 2015년과 같은 수주 부진의 장기화 가능성을 의심했었다. 이유는 2015년에만 35% 이상 급락했던 국제유가의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었고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발주 규모가 축소되면서 국내건설기업의 수주 감소가 예상됐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2016년 해외건설 수주는 2015년보다 179억 달러가 적은 282억 달러를 기록했다. 282억 달러는 2006년(165억 달러) 이후 가장 낮은 뿐만 아니라 71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10년의 39%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중동의 경우 95억 달러를 기록했던 2006년보다 불과 12억 달러 많은 107억 달러에 그치면서 연간 수주 100억 달러가 위협받게 됐으며 126억 달러를 기록한 아시아 시장도 지난 2007년(128억 달러) 이후 최저 규모다.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수주 구조로 인해 해당 시장에서 부진은 직접적으로 전체 수주 부진의 결과를 낳았다. 특히 연간 수주의 약 60%를 차지하는 중동시장이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으로 급격히 위축되면서 국내건설기업들에게는 대안 시장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중동 시장에 대한 의존도만큼이나 플랜트 부문이 차지하는 높은 수주 비중도 수주 부진의 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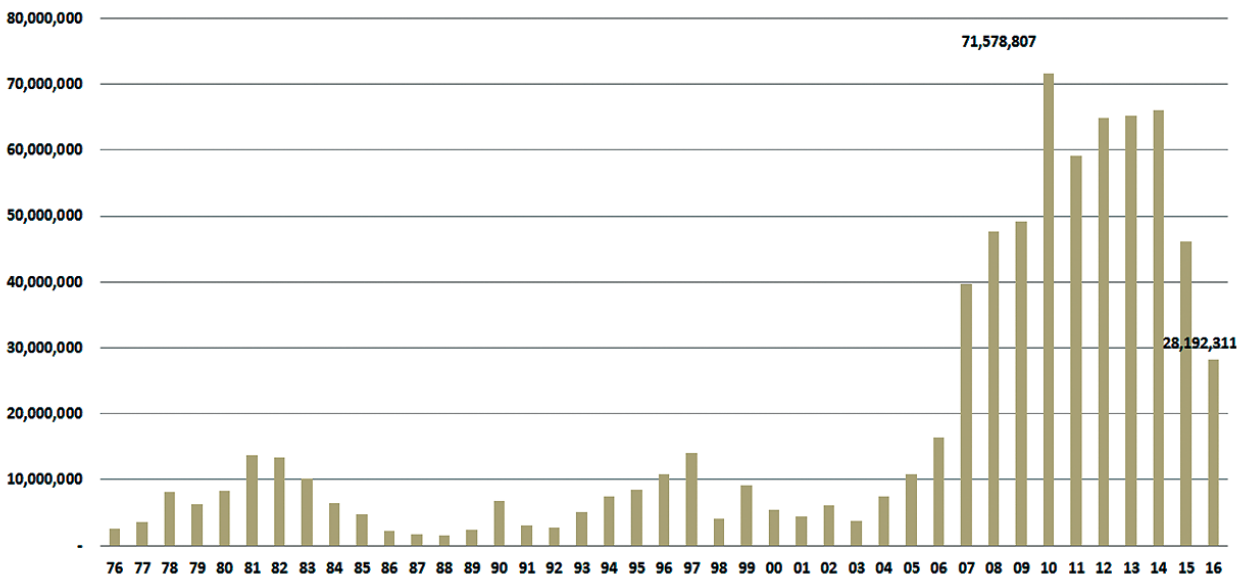


그림 1. 해외건설 수주 실적 추이¹⁾

1)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2017)



그림 2. 국제유가 추이²⁾

을 깊게 만들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영향 요인들을 감안할 때 2017년에 급격한 수주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 아래 지정학적 불안, 국제유가 부진, 자국 우선주의 강화 등 시장에는 호재보다 악재가 많은 상황이다.

2. 직면한 도전들

올해 1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7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7%로 지난 2016년 6월에 발표한 전망치보다 0.1% 하향 조정되었다. 선진국의 성장률은 1.8%, 신흥국은 4.2%를 기록해 2016년 대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기조 팽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성장세를 위협하는 하방 위험 요인들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우선주의 정책은 주요 국가들과의 통상 마찰을 넘어 자국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은 하드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협상에서 브렉시트 이전과 차이가 없는 EU시장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유럽통합과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가진 극우성향의 정치 세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선거 결과 등에 따라 시장에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한때 배럴당 20달러를 기록하던 국제유가는 최근 50달러 선까지 반등했다. 지난 2년간의 투자 축소와 OPEC을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등이 유가의 반등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국제유가에 대한 전망을 종합해 보면 배럴당 최고 75달러에서 최소 60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가회복은 미국의 셰일오일 업체의 생산량 증산 가능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합의된 감산량을 지키려는 산유국들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하방 위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감산 또는 증산과 같은 공급 측면에서의 조작적 요인과 더불어 에너지 소비 구조의 변화도 중장기적으로 관련 산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는 하지만 해당 산업은 이미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세계 석유 소비의 64%가 운송 비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기차 산업의 성장은 향후 석유의 수급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이와 같은 석유 시장과 관련 내외부적 요인들이 향후 국제유가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의 변화도 그 궤를 같이 할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맥킨지(McKinsey)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중에 지정학적 불안정성(Geopolitical Instability)은 지난 2013년 응답률(61%)보다 23%나 증가한 8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기업들이 과거와는 달리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2) Financial Times(2017.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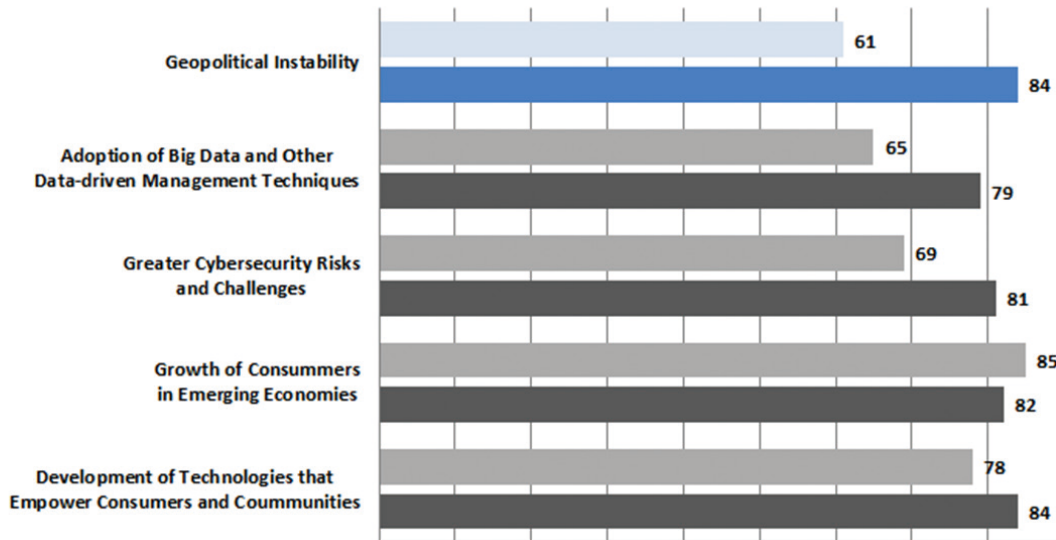


그림 3.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영향 요인³⁾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과 내전, 테러 등은 사업환경의 변화를 넘어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한 기업이 갖는 경영상의 부담은 보수적인 시장 접근과 투자 축소 등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3. 성장 전략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 해외건설시장에는 영향의 정도나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때문에 요인에 대한 면밀한 동향 파악과 그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과 시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의 부진을 만회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수주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수주 전략에 대한 시각 제고가 요구된다. 더 이상 해외건설 수주는 개별 기업만의 몫이 아니다. 해외건설시장에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건설기업들만이 아니라 터키, 중국, 인도 등 후발 진출 국가들의 기업들로 넘친다. 수주하려는 기업은 많은 반면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국가들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수주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력과 시행력을 갖추는 것은 기업의 몫이지만 사업의 수주 환경을 국내기업에게 우호적으로 만드는 데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

요하다. 특히 기획에서 금융 및 시공 및 유지보수 등 종합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의 증가는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작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s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이 추진하는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창립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수주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두 번째는 해외건설을 프로젝트 수주와 시행이라는 건설의 한 부분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자동차, IT 등과 같은 독립된 비즈니스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업의 복잡성과 다양성 그리고 시장의 대외적 환경 변수들을 가진 해외건설이라는 특성을 비즈니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시각은 비단 기업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건설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부에게도 필요하다. 비즈니스라는 인식을 공유할 때 효율적인 국가차원에서의 수주 전략 마련과 추진이 가능하며 지원정책의 연속성 확보 또한 가능하다.

끝으로 과거 해외건설시장에서의 수주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기업의 투자와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국가마다 다른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화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는 민간의 협력을 좀 더 유인해 정책금융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이외에도 수주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설외교의 확

3) McKinsey(2016)

대도 필요하다.

4. 맺음말

해외건설시장은 모든 기업에게 공평하다. 만일 유리함과 불리함이 구분된다면 그건 오랜 시간동안 투자해 온 결과 때문일 것이다. 누적 7,500억 달러와 52년의 수주 역사를 돌아보면 국내건설기업이 거둔 성과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특유한 근성과 노력으로 고비를 넘겨왔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난 50여년의 노력보다 앞으로 50년을 위해서 더 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